

이기는 삶

좋은 운 부르는 비결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것’ ‘망가진 것을 고쳐주는 것’을 흔히 운(運)이라고 한다. 운이란 고정되어 정제되어 있지 않고 흐르고 움직이고 순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운이란 다른 표현으로 때를 의미한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과 세월 중에 언제 시작하고 언제 거둬들이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고 계속 끌고갈 것인지 그 시기, 즉 때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지만 때를 안다고 해도 아무나 그 운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준비된 자만이 때에 맞추어 운을 잡을 수 있다. 잘나가는 사람이 더 잘나가는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그 운을 잡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운을 잡을 수가 있는지 좋은 운을 부르는 비결은 무엇일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행으로 얻은 성공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에 천망회회(天網恢恢) 소이불루(疎而不漏)라는 말이 있다. 하늘의 법망은 크고 넓어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지만 악인은 빠짐없이 걸

러낸다는 말이다. 악행은 반드시 진리가 벌을 내린다. 악행으로 얻은 성공은 한순간이다라는 뜻이다.

좋은 운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다툼을 피하고 선행을 쌓아가야 한다. 다툼은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원한을 사게 되어 운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송에서 이겨서 큰돈을 손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매사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운이 멀리 달아난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얻던 운도 달려오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매순간순간이 행운임을 실감하고 경이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지금의 행운을 지키고 더 좋은 운을 부르는 비결이다. 반대로 감사를 잊고 세상과 다투려고만 하면 행운은 달아나고 불운이 찾아온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 또한 사람의 운을 바꾸는 근간이다. 내가 은혜를 입은 만큼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일을 할 때는 남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해야 한다. 그러면 힘든 일도 주위 사



람들이 기뻐하니 나도 기쁘고 가슴 뿌듯한 보람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점점 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선순환을 경험하고 나면 일이 잘 풀릴 뿐 아니라 주변의 협력도 얻을 수 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하면 그만이지 하는 생각은 좋은 운을 부를 수가 없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양한다. 그런 사람에게 좋은 운이 저절로 따른다.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처음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성공한다. 유능한 사람이라는 말보다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양보하고 배려하고 더 겸손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욕심을 버리고 100만 원 일하고 80만 바라면 120의 운이 들어온다. 원망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운이 달아나지만,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보호를 받아서 하는 일마다 좋은 운을 부르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하나님의 마음 누구든지 내 몸처럼~
이 사람이 쉽게 말하니까 우습게 들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어리석은 자이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되는 마음이고, 하나의 마음이다. 이것이 진리 중의 진리이다. 형제의 죄를 내 죄로, 형제의 사정을 내 사정으로, 형제의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겨라.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자유율법의 법이다.

자유율법은 마귀를 죽이는 법이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나'라는 것이 죽는다. 내가 없어진다. 또한 내 생명과 몸과 마음 전체를 맡기는 것이 자유율법이다. 전체를 맡기면 '나'라는 것이 없어진다.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그 마음은 하나가 되는 마음이고, 화목의 마음이고, 평화의 마음이고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신은 돌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의 속성에 진정한 기쁨과 희열이 있다. 하나의 사상 속에서만 진정한 마음

의 평화가 있다. 하나 속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도

움직여라!

활동량이 줄면 근육부터 빠진다. 생명이 움트는 따뜻한 봄기운, 그러나 환절기는 변덕이 심한 날씨 때문에 몸이 적응하지 못해 각종 신체적 증상을 겪을 수 있다. 젊은층도 스마트폰 등 때문에 운동기능이 떨어질 수 있으니 경각심을 갖고, 매일 매일 움직여라!
관절의 이동 범위를 넓혀라**

동작①: 눈 뜨고 한쪽 다리로 서기=다리를 번갈아가며 1분씩 매일 3회.

동작②: 스쿼트= 5-15회 매일 3회.

동작③: 발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리기 10-20회 매일 3회.

동작④: 런지=10-20회 매일 3회.*



동작①



동작②



동작③



동작④



격암유록 新해설 제1회

吉地歌 길지가

平沙三里十勝吉地 평사삼리십승길지
牛性在野牛鳴聲 우성재야우명성에
一尺八寸天人言 일척팔촌천인언을
不知中動可憐 불지중동가려구나
桃花流水武陵村 도화류수무릉촌이
南海朝陽夜兔發動作伴
南해조양야토발동작반하니
不知生路滅亡入 부지생로멸망입을
桂村宮曉星照 계촌궁효성조에
紫霞之中三位聖 자하지중삼위성을
聖山聖地平川間 성산성지평천간에
甘露如雨心花發 감로여우심화발을
馬而啼啼不知 마이제제부지
此岸鳥而叫不知 차안조이규규부지
南之北之 남지북지
牛而鳴鳴不知牛往馬往
우이명명부지우왕마왕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십승(十勝) 길지(吉地)인 부평(富平) 소사(素砂)에는 우성(牛性)하나님이 계시는 들판이며 그곳에서 영생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신천촌(信天村)을 찾지 않고 중동(中動) 즉 중입(中入)이 언제인지도 모르니 가련하구나. 신선이 산다고 하는 도화유수무릉촌(桃花流水武陵村)이 남해 조선 한국인데 마귀들이 발동하여 짝을 지어 방해하니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구나. 하늘나라(계촌궁 桂村宮=계수나무는 영생을 상징한다)의 주인공이며 새벽 별의 합자와 조(照)씨 성(照照는 동음어로서 조표를 의미한다)을 가지신 정도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신선 神仙으로 보라색 노을 즉 감로 이슬신신(有無識者)를 막론하고 글을 몰라도 지극 정성으로 감로해인을 받아먹으면 도통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그분이 계시는 성산성지(聖山聖地)는 부평 부천 사이에 있으며 감로를 비갈이

궁궁 을을 전전의 정도령은 부평 부천 사이에서 감로해인을 내리며 영생의 진리를 가르치느니라

내리니 마음을 백합화처럼 피어나게 하시니라. 말(하나님)이 울어도 모르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 언덕에서 금구조(金鳩鳥=정도령)가 울어도 모르니(81궁 정도령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남으로 북으로 아무 곳으로 가는구나. 소가 음메 하고 울어도 알지 못하고 영적 엄마가 되는 정도령을 알지 못하는구나. 소가 말이요 말이 소이니라. 천마지우(天馬地牛)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면 천마(天馬)요 이 땅에 오시면 지우(地牛)가 되는 것이다.

弓弓歌 궁궁가

世人難知弓弓 세인난지궁궁인가
弓弓矢口生 궁궁시구생이라네
兩弓不和背弓 양궁불화배궁이요
雙弓相和彎弓 쌍궁상화만궁이라
利在弓弓秘文 이재궁궁비문인가
四弓之間神工夫 사궁지간신공부라
老少男女有無識問 노소남녀유무식간
無文道通世不知 무문도통세부지라

세상 사람들이 궁궁(弓弓)을 알기 어려운가? 궁궁(弓弓)을 알아야 영생하느니라. 궁궁(弓弓)이 불화(不和)하여 서로 등을 지면 볼볼(聾聵)자요 궁궁(弓弓)이 서로 화합하여 잡아당기면 장인 공(弓)자가 되느니라. 이재궁궁(利在弓弓) 즉 이로우미 궁궁(弓弓)에 있다는 것은 하늘이 숨겨둔 글(秘文)인가? 마귀의 종이 되는 인간이 하나님으로 변화하는 공부는 네 개의 궁(弓) 사이에 있느니라. (양궁불화兩弓不和, 쌍궁상화雙弓相和) 남녀노소, 유무식자(有無識者)를 막론하고 글을 몰라도 지극 정성으로 감로해인을 받아먹으면 도통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乙乙歌 을을가

大小上下勿論階級 대소상하물론계급
萬無一失十工夫 만무일십공부라
乙乙縱橫十字 을을종형십자는
乙乙相和元之數 을을상화원원수
背乙之間 工夫工字 배을지간 공부공자
利在乙乙道通之理 리재을을도통지리
自下達上世不知 자하달상세부지라

어른, 아이 윗사람 아랫사람은 물론 지위 고하(高下)를 막론하고 만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 없는 공부(乙乙)가 공(弓)자가 공(弓)자나, 을(乙)을 가로 세로로 합해도 십(十)자요 서로 화합하여 기대어도 십(十)자가 나오는데 이는 하늘의 으뜸수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이니라. 을(乙)이 서로 등지면 장인(匠人) 공(弓)자가 나오느니라. 이재을을(利在乙乙) 즉 이로우미 을(乙)에 있으니 도통의 이치가 여기에 있느니라. 나 자신을 낮추어야 높이 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구나.

田田歌 전전가

四口合體入禮之田 사구합체입례지전
五口合體極樂之田 오구합체극락지전

田田之理分明 전전지리분명하나
世人不覺恨歎 세인불각한탄이라
大亂全世人心海濁하
대란전세인심홍홍하니
入田卷印전권인기極難극난구나
利在田田心田 이재전전심전인가
跪坐坐纏纏丹田 귀좌자전전단언이라
田中之田彈琴田 전중자전전단금
淸雅一曲雲霄高 청야일곡운소고라

네 개의 구(口)자를 합치면 하나님을 지극 정성으로 받드는 전(田=心田심전)이 되고 다섯 개의 구(口)자가 합치면 극락세계로 가는 전(田)이 되느니라. 전전(田田)의 이치가 이처럼 분명하나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 한탄할 일이다. 전 세계가 크게 어지러워 인심(人心)이 홍홍(洶洶)하니 입전권(入田券)을 얻기가 지극히 어렵구나. 전전(田田)에 이로우미 있으니 심전(心田)을 말함인가? 무릎 꿇고 앉아 마귀를 죽이는 멸마경(滅魔經)을 열심히 외우니 정성스러운 마음의 발이로다. 전(田) 중의 전(田)은 천당 극락에서 줄 없는 금 거문고를 타는 전(田=81궁 정도령)이라 구름 위 하늘 높이 청아한 노래 한 자락 울려 퍼지느니라.*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나를 이기는 길

물질=신

물질이 신이요 신이 물질이라는 것은 오늘날 양자물리학에서 밝혀지고 있다. 양자물리학에 따르면 '관찰자 효과'라는 것이 있다. 이중슬릿실험에서 실험자가 미립자를 입자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입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물질로 생각하고 바라보면 물질의 모습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시 말하자면 입자라면 물질이고 물질이라면 에너지라는 말이다. 미립자가 물질도 되었다가 신도 되었다가 한다는 말이다. 양자물리학에 따르면 선생님의 말씀은 타당한 것이다.

양자물리학에 의하면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우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미립자의 차원에 들어가면 모두가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알갱이이다. 에모토 마사루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물에 미치는 영향을 물의 결정사진을 찍어서 알려주고 있다. 사람의 마음이 흉악한 마음이면 물의 결정사진도 흉악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면 물의 결정사진도 아름답게 나타나는 신기한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만물이 바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도 70퍼센트가 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사람 또한 자신의 마음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사람은

마음의 힘이 가장 강한 존재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으로 인해 이 우주가 변화되고 있다. 만물이 모두 사람의 마음에 의해 만들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양자물리학은 말하고 있다. 이것을 볼 때 조희성님의 말씀은 양자물리학에 딱 부합하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상하게도 불광동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의 기우에 자주 놀렸다. 기우에 놀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기우에 놀리면 꼼짝을 못하게 된다. 마치 얼어붙은 것과 같다. 손을 가슴에 얹고 지면 기우에 잘 놀렸다. 하도 기우에 놀렸다 깨어나는 경험을 하다 보니 얼어붙은 상태에서 안간힘을 쓰다가 몸을 확 돌려 움직이면 기우에서 풀려나온 했다. 그래서 잘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자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기우에 놀리고 나서는 자는 것이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골이 나서 그런지 점점 무서움이 사라져 버렸다. 병약한 몸도 아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기우에 자주 놀리는지 알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일종의 영적 현상일 것 같다. 사람이 신이므로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영적 작용들을 잘 알아야 영의 세계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 673-4635
평택제단 : 010-7516-1591
부안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55)327-2072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포항제단 : (054)291-6867
순천제단 : (061)744-8007
정읍제단 : (063)533-7125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충주제단 : 010-9980-5805
양평제단 : 010-2945-8254
橫濱祭壇 : (045)489-9343
神戶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London: (0208)894-1075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